

제8회 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AND DEMOCRACY(살아있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서)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18년 3월 18일 경남 창원시 엘가커피에서

1. 제임스 매디슨, 연방주의자 논문 No.10(1787). The Federalist Paper: Federalist No.10. 계속

-민주정이라고 해서 독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경우도 독재지만 선거를 하는 등의 형식적 민주 정부를 취한다. 공화정에도 왕이 있다. 단, 그 왕의 자리를 대통령이 하는 등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다른 차이점은 민주 정부보다 공화정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시민의 수와 영토의 크기가 더 크다는 점이며, 이 상황 때문에 공화정 보다는 민주정에서 당파적 조합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게 된다. 사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사회를 구성하는 상이한 정당과 이해관계의 수도 적을 것이며, 동일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빈도도 줄어들 것이며, 과반수를 구성하는 개인의 수도 적을 것이며, 이들이 포함되는 범위도 좁을 것이며, 압제의 계획을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용이성도 높아질 것이다. 범위를 넓히면, 정당과 이해관계가 더 다양해지며, 전체의 과반수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공통의 동기를 가지게 될 확률이 낮아지며, 그러한 공통의 동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느끼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단결하여 행동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다른 장애물 외에도, 정의롭지 못하거나 명예롭지 못한 목적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동의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의 수에 비례하는 불신에 의하여 견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별의 결과를 통제함에 있어서는 공화정이 민주정 보다 유리하며, 대규모 공화정이 소규모 공화정보다 유리하며, 연방이 그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 보다 유리하다.

2. 권리장전(1791)

-수정조항 1조는 정신적 자유에 대한 것이다.

제1조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수정조항 2조는 육체적 자유에 대한 것이다. 또한 총기허용, 개인들이 무장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다.

제2조

통제가 잘된 국민군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장하고 소지하는 인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는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

제4조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 받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체포 및 압수 영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될 자나 압수할 물품을 기재하지 않고는 이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배심원제에 있어 대배심과 소배심이 있다. 대배심은 형사사건과 관련, 사형관련 중대사건을 위해 20여명 정도로 구성된다. 소배심은 그보다 적은 12명으로 구성된다.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과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않는다.

-수정조항 7조에 따르면 성문법보다 도덕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은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

3. 그 밖의 헌법 수정

-노예는 국가만 관리하고 독점한다. 이때 노예는 범법자를 뜻한다. 즉, 국가 내에서 자유를 빼긴 자이다.

제13조 (1865년)

제1항: 노예 또는 강제적 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합중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장소에도 존재할 수 없다.

4. 조지 워싱턴:고별연설

-서문 간략: 고별연설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워싱턴이 연설의 형태로 대중에게 발
행한 일종의 공개 편지였다. 워싱턴의 동료 미국인들은 신생 공화국의 공무에 대한
대통령의 고별로서 승인하기 위해 이 공개 편지에 '고별연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는 당쟁과 파벌주의를 경고하였고, 외세의 영향 또는 간섭을 경고하였고, 또한 공
적 사안에서의 도덕성과 선의를 호소하였다.

-개인이 전체성을 가질 수도 있다. 국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개인들이 만들었다.

연방의 효능과 영속을 위해서는 한 통합정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동맹은 그것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통합정부를 적절하게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략- 그 원칙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정해졌고, 권력이 자유롭게 분산되고, 안보와 정력을 결합하고, 자체 내에 자체의 개정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본 정부는 여러분의 신임과 지지를 마땅히 받을 만 합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법을 준수하고 그 조처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기본 원리에 다라 부과되는
의무입니다.